

국악·창작·대중음악 넘나드는... 팔방美樂이로구나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랩, 12월까지 ‘문턱 2025’ ‘팔방미악’ 팀 개막 공연... 25일 보헤미안공연장



광주 동구 보헤미안 공연장에서 오는 25일부터 매달 ‘문턱 2025’ 공연이 펼쳐진다. 첫 공연을 맡은 ‘프로젝트 팔방미악’.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랩 제공〉

“속는 시민들과 겁에 질린 너희들. 비가 내리지만, 불이 붙은 목소리들. 오늘 하루종일 굶은 눈빛들이 책의 활자들과 다시 살아나네.”(프로젝트 팔방미악 ‘분화구’ 중)

익숙한 악기들이 낮은 울림으로 귀를 두드린다. 가야금과 일렉기타가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고, 소리꾼의 목소리는 전자 건반을 따라 흐른다. 국악과 창작, 전통과 실험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무대가 새로운 ‘소리의 풍경’을 그려낸다.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랩이 올해도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문턱 2025’ 시리즈 공연을 펼친다. 그 첫 문을 여는 주인공은 국악과 창작음악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9인의 청년 음악가들로 구성된 프로젝트팀 ‘팔방미악’. 이들은 오는 25일 오후 7시 광주 보헤미안공연장에서 개막 공연 ‘팔방미악이로구나’를 통해 관객들과 만난다.

팔방미악은 국악과 창작음악,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9인의 청년 예술가들이 모인 팀이다. ‘팔방미인’을 연상케 하는 팀 이름에는 여덟 방향으로 음악적 실험을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팀은 태평소와 타악을 맡은 김현무 나랩 대표를 중심으로, 김영훈(건반), 김가봉(일렉기타), 조재희(어쿠스틱 기타), 최민석(베이스), 윤연나(가야금), 최옥미(대금·소금), 박소연(소리꾼), 김단비(진행) 등 실력과 음악인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악을 기반으로 일렉트로닉, 창작 가요 등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하며,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창작곡 작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피아노와 대금의 절묘한 조화를 담은 ‘새타령’을 비롯해, ‘데굴데굴’, ‘스타라이트’, ‘새하얀 눈’ 등 다채로운 창작곡들이 무대를 채운다. 여기에 이 시대의 탐욕을 풍자한 ‘늑부’, 전통 경기민요 ‘풍년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 5·18 민주광장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분화구’까지

지 시대를 꼬집는 메시지의 곡들도 함께 소개된다. 전통 국악의 형식을 빌려 동시대 현실을 비트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문턱 2025’는 12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이어진다. 특히 올해는 ‘시음+악회’라는 새로운 형식을 도입해 더욱 주목된다. 오는 8월 29일 열리는 ‘특별한 밤의 애주가’, 11월 16일의 ‘특별한 낮의 권주가’ 공연에서는 음악 감상과 함께 25년 경력의 와인 전문가가 들려주는 술 이야기가 곁들여진다. 주류를 직접 시음하며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무대는 청각과 미각이 어우러지는 이색적인 경험을 기대하게 한다. 두 공연 모두 40석 한정으로, 만 18세 이상만 입장 가능하다.

이밖에도 ‘평범과 비범’ (9월 26일), ‘The Last Night’ (10월 31일), ‘찰나’ (12월 26일) 등 각기 다른 콘셉트와 기획을 담은 공연들이 차례로 이어진다. 정악과 산조, 민요, 판소리, 창작곡에 이르기까지, 전통 국악을 현대적으

로 풀어낸 다양한 음악들이 무대에 오른다.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한편 문턱 시리즈는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랩이 2023년부터 매년 하반기 선보이고 있는 기획 공연 프로젝트다. 공연장과 국악을 낯설게 느끼는 관객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완성도 높은 무대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취지다. 신선한 기획과 탄탄한 프로그램, 실력 있는 출연진으로 지역 공연문화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현무 나랩 대표는 “올해 문턱 시리즈는 음악 중심의 기존 구성을 넘어, 관객들이 보다 폭넓은 감성으로 공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지역 예술가들이 열정을 담아 만든 이 무대에서 관객들과 자유롭게 깊이 있는 감상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프로젝트 팔방미악’의 지난 공연 모습.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랩 제공〉

‘나의 예술의 시간 존재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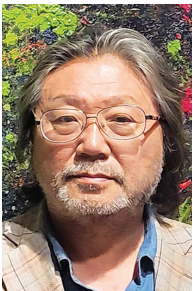
한희원 작가, 24일 광산문예회관에서 강연

최근 광주시 문화예술상 미술상 ‘오지호미술상’을 수상한 한희원 작가는 1970년대 민중미술을 토대로 한 작업부터 50여 년간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열어왔다.

‘대지, 별, 바람 그리고 생의 시간’전(한전아트센터)을 비롯해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특히 양림골목비엔날레 추진 등 지역의 역사성과 인문학적 가치를 토대로 예술적 성취와 함께 사회적 실천을 도모해왔다.

한 작가의 삶과 예술작업 등을 들을 수 있는 강좌가 마련됐다.

한 작가는 오는 24일 오후 3시 광산문예회관에서 ‘나의 예술의 시간 존재로부터 빛과 안식까지’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이번 강좌는 광산아카데미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광산구 주최, 인문연구원 동고송이 주관한다.



한희원 작가

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인이기도 한 한 작가는 조선대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사회집 ‘이방인의 소모’를 발간했다. 양림동에 ‘한희원 미술관’을 개관했으며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작품활동을 하기도 했다. 지난 2024년 양림골목 비엔날레 집행위원장을 역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전통 채색화, 디지털과 만나다’

우영숙 작가 광주서 첫 전시... 24일까지 아크 갤러리

서로 다른 장르와 기법의 만남은 신선하면서도 이색적인 감성을 선사하기 마련이다.

아크 갤러리에서 오는 24일까지 펼쳐지는 우영숙 작가의 ‘전통 채색화, 디지털과 만나다’는 전통 채색화와 디지털의 만남을 모티브로 한다. 광주에서 첫 전시를 여는 작가는 그동안 다중성의 이미지를 투영한 작업을 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2007년 전후로 시작한 디지털 작품, 2019년 이후 2025년까지 전통 채색화와 디지털 기법을 접목한 작품을 선보인다. 우 작가에 따르면 디지털 작업은 이미지를 업로드해 레이어 위에서 편집 도구를 활용해 이뤄진다. 원하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픽셀화, 텍스처, 노출 등 다양한 특수효과를 임피해 선택과 수정의 반복 과정을 거친다.

우 작가는 “디지털 기능은 작가의 감각에만 의존하는 수작업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며 “예상하지 못한 다채로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묘미”라고 설명했다.

‘someboby23’은 현대적 감각과 전통적 정서가 발현

된 작품이다. 뒤를 돌아보는 여인의 모습이 이색적으로 구현됐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한 채 돌아보다 돌이 된 신화 속 여인을 초점화했는데 호기심과 나약함이 가득한 인간의 내면이 잘 드러나 있다. 머리에 는 왜곡된 나비 조각이 얹혀 있으며 상반신을 따라 조각난 나비 이미지가 드문드문 새겨져 있다.

‘somebody -허상2’는 다소 상상력이 확장된 그로테스크한 감성을 발현한다. 바탕에 깔린 입술 이미지를 배경으로 한 여인의 입술이 과장적으로 표현돼 있다. 전체적으로 모든 이미지와 의미는 ‘입술’로 수렴된다.

우 작가는 “오늘의 사회는 SNS 발달로 대화의 창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면서도 “한편으로 사람들 간의 진정한 의미의 대화는 줄고 소통 또한 단절된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한편 우 작가는 동덕여대 회화과 및 이화여대 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했다. 인사아트센터, 스위스제네바 국제아트페어 등 다수의 아트페어를 비롯해,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으며 개인전을 열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omebody23’

여름밤, 숨막히는 공포 연극 ‘흉터’

24일부터 기분좋은극장

“여름밤, 그날의 기억이 당신의 곁을 맴돕니다.” 숨막히는 심리와 차가운 반전이 교차하는 오싹한 무대가 찾아온다.

공포 심리 스릴러 연극 ‘흉터’가 오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광주 상무지구 기분좋은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2012년 초연 이후 관객들의 꾸준한 호응을 받아온 이 작품은 한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상처를 간직한 두 남자의 기억과 심리전을 총출동해 그려낸다. 치밀한 구성과 충격적 반전으로 매년 여름 관객들을 소극장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작품은 세 친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대학 시절부터 사랑과 우정으로 얽힌 재웅·동훈·지은은 함께 등산을 떠나고, 그곳에서 지은이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는다. 그리고 8년 뒤 재웅과 동훈이 다시 그 산을 오른다. 등산 도중 재웅이 부상당해 길을 잃게 되고, 두 사람은 우연히 발견한 낡

은 산장에서 밤을 보내게 된다. 폐쇄된 공간 안에서 되살아나는 기억들, 그리고 서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그날’은 점점 진실의 실체를 드러내며 극한의 심리전으로 이어진다.

극은 공포를 자극적인 장치보다는 배우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 밀도 높은 대사과 공간 연출로 끌어낸다. 좁은 산장을 무대로 관객과 배우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해 마치 실제로 두 인물과 한 공간에 있는 듯한 몰입을 유도한다. 곳곳에 배치된 코믹한 요소는 무거운 서사 속 긴장감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며 관객의 호흡을 이끈다.

기분좋은극장 관계자는 “이번 작품은 오랫동안 여름 소극장을 책임진 대표적인 공포 연극”이라며 “후텋지근한 여름, 친구나 연인과 함께오셨다고도 짜릿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학생 이상 관람 가능, 전석 4만원.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태극기와 함께한 삶’

오방 최흥종 기리다

최흥종기념관, 9월 28일까지 기획전

‘광주의 아버지’, ‘무등산의 성자’로 불린 오방 최흥종. 광주 최초의 목화자로서 그는 한센병 퇴치, 빈민 구제, 독립운동과 민족 교육에 평생을 바쳤다.

그 숭고한 삶과 정신을 되새기는 기획전이 무등산 자락에서 펼쳐진다.

오방 최흥종기념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28일까지 기획전시 ‘오방과 태극기 휘날리며’를 연다. 이번 전시는 광주지방보훈청이 주최하고, 오방 최흥종기념관이 주관하는 현충시설 기념관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전시는 독립운동가이자 민족 교육자였던 오방 선생의 생애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광주 지역 독립운동가들과 함께했던 태극기의 상징성과 의미를 조명한다. 선생



‘오방과 태극기 휘날리며’ 전시 모습.

〈오방 최흥종기념관 제공〉

이 남긴 신념과 실천의 기록, 그리고 당대 항일운동 속 태극기의 상징성과 정신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

전시와 연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양림동 3·1만세운동길 탐방과 더불어, 샌드아트·케이크·팝아트로 오방과 태극기를 표현해보는 체험 활동이 이어진다. 태극기의 역사와 의미를 배우고 손으로 직접 그 정신을 되새겨보는 체험은 현재 1기 교육이 진행 중이며, 2·3기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오는 10월에는 참가자 작품을 대상으로 한 전시회도

열릴 예정이다. 기수당 20명 모집, 참가비 무료.

이 밖에 기념관을 방문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상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기념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은화 관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가 시민들에게 최흥종 목사의 ‘오방’에 깃든 정신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